

수자원공사, 장성 장애인복지관 찾아 점심 봉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본부장 최등호)는 최근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배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 생일 축하 잔치를 열었다. 영·섬본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관리하는 기구다. <수자원공사 제공>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낙도 보건의로 서비스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 어업안전보건센터는 최근 신안군 암태면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찾아 '낙도지역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초록우산 광주본부-남도외식문화개발원-협건 협약



밥 한 공기 나눔' 맛 지도 캠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지난 29일 광주시 구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남도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남도외식문화개발원(원장 이은상), SNS바이럴 온라인 마케팅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협건(대표 최진용)과 '밥 한 공기의 나눔' 남도 나눔 맛 지도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밥 한 공기의 나눔' 남도 나눔 맛 지도 캠페인은 광주지역 저소득 및 복지사각 지대 아동을 돕기 위해 고객이 주문하는 공기밥의 금액을 외식업체가 적립해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밥 한 공기의 나눔' 남도 나눔 맛 지도 캠페인의 참여 또는 문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062-351-3513-4)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인사

- ◆사업학교교직원연공금단(8월1일자)
- ◇신규임명
- ▲연금사업본부장 김경태
- ◇승진(1급)
- ▲기획조정실장 이동환

- ◇승진(2급)
- ▲경영개선팀장 김승범
- ◇전보
- ▲사회적가치구현실장 손규준 ▲재직자총괄팀장 최창동 ▲대전지부장 이기범 ▲고객만족실장 이대수 ▲호남지부장 고영규 ▲리스크관리실장 박형수

“외국살이 고달픔과 서러움이 시가 됐네요”

시집 '로스앤젤레스...' 펴낸 안도 출신 정국희 미주한국문인협회장

고향에 대한 향수·추억 시 모티브 고모부 보낸 편지 문인의 길 계기 재외동포문학상·가산문학상 수상 “한국 돌아가 소설 쓰고 싶어”

“미국에는 일가친척이 하나도 없습니 다. 그래서 힘들고 서러워도 어디에도 일러바칠 곳이 없어요.(웃음) 어쩌면 일러바치지 못한 것들이 다 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이민자들에게 문학을 한글기 빛과도 같다. 문인에게 모국어로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안도 출신 정국희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이 신작 시집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을 거처로 삼았다' (시산맥)을 펴냈다.

기자는 최근 정 시인과 이메일로 시집 출간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 머나먼 타국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고향 안도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국희 시인은 “이번이 네 번째 시집인데 5년만에 펴냈다”며 “써 놓은 시가 100편이 넘어서 골라낸 다음 모두 버리고 새로 썼다”고 말했다. 이번 시집의 전반적인 주제는 ‘타국살이’ 이역만리 타국에서의 삶

은 고달픔과 외로움, 향수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 시인에게 는 일반인들보다 감성적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

“안도에서 초등 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어요. 겨울이면 늘 동상이 걸려서 손이 항상 부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과 후엔 할머니가 고갱이를 뒤져 준 동전으로 눈갈시탕을 사먹었지요.”

시인의 기억에는 70년대 시골 학교의 하교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녀는 “그때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딱딱했는지 읊내에서부터 동네 어귀 산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만날 때까지도 안 녹았다”며 “그 돈은 할머니가 새벽마다 읊내에 내단 판 푸성귀로 마련한 돈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것은 남편의 유학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석사과정에서 2년 후에 한국으로 나왔다. 이후로 다시 박사과정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놀라웠게 됐다. 생계를 위해 일할 기간 장사를 하기도 했는데 세 번째 시집은 “당시 가게에서 생긴 재미있는 일들이 소재가 됐다”고 한다.



“멕시코를 상대하는 가게였는데 당시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주인이 항상 뭘을 쓰고 있고 책만 들여다본다’는. 그때문인지 손님은 별로 없고 도둑들이 많이 다녀 갔지요.(웃음)”

사업보다는 문인의 기질이 강했던 탓이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불쑥불쑥 고향 생각이 나고, 그때의 추억들은 고스란히 시의 모티브가 된다.

“중학교 때는 친한 친구 다섯이 뭉쳐 다녔어요. 방과 후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듯 우리도 똥이뽕집을 제집처럼 드나들

었으니까요. 안도에 하나뿐이었던 사진관 딸이었던 친구가 ‘뭘 주셨습니까.’

문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중학교 때 고모부에게 보낸 편지가 계기가 됐다. 대학생인 오빠, 고등학생인 언니, 그리고 졸업이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이 있어서 정작 자신의 고등학교 입학 등록금을 낼 처지가 안 됐다고 한다. “부모님 몰래 고모부에게 편지를 써 등록금을 빌려주면 다음에 갚겠다고 했다”며 “당시 고모부는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모부는 “국회는 앞으로 글을 써야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잔잔한 일상들/ 내 방을 밝혀주었던 외로운 것들아/ 무시로 떠다니던 그리운 것들아/ 이제 가져라/ 너무 멀지 않는 곳으로/ 낯설지 않는 곳으로”(‘시인의 말’ 중에서)

이번 시집은 이처럼 타국에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모국어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현재 그녀는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재외동포문학상, 가산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이가 더 들면 한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소설도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 곁에는 항상 문학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성준 기자 skypark@kwangju.co.kr

“즐기는 마음으로 훈련하면 좋은 수영선수 될 것”

광주대회 투혼 ‘수영 여제’ 러데키 발달장애 선수들에 희망 메시지

‘수영 여제’ 케이티 러데키(22·미국)가 발달장애 수영선수들을 만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러데키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포셜올림픽코리아 사육을 방문해 한국 발달장애 수영 선수 6명을 만났다.

스피셜올림픽코리아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지난 28일 막을 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러데키는 출국 전 한국 장애인 선수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기 위해 스포셜올림픽코리아를 찾았다.

러데키는 자신의 어머니, 오빠와 함께 오전 10시 30분께 스포셜올림픽코리아 사육 5층에 마련된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다. 러데키는 “수영을 한 덕분에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었고, 이렇게 한국에도 올 수 있었다”며 “모든 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광주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러데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언했다.

그는 “즐기는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동료 선수들과 함께 수영하고, 실력을 향상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멘토가 돼주시는 코치님의 조언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8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수영여제’ 케이티 러데키(앞줄 가운데)가 30일 서울 스포셜올림픽코리아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수영 선수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 들어야 한다”며 “수영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데키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 역대 최다인 15개의 금메달을 차지한 최고의 선수다.

이번 광주 대회에서 그는 4개 대회 연속 여자 자유형 400m·800m·1500m 제패를 노렸지만, 건강 문제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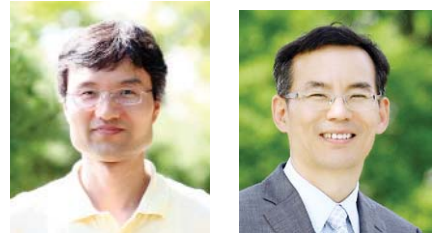
잠깐의 회복을 거친 그는 마지막으로 출전한 여자 자유형 800m에서 최악의 몸 상태를 띠고 금메달을 차지해 박수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이 크지 않느냐는 한국 선수의 질문에 그는 “언제나 기권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면서도 “몸이 아플 때는 경기보다는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명문 사립 스탠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러데키는 배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수영장에서의 배움만큼이나 교실에서의 배움도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선수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대 김남권·최효상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김남권 교수 최효상 교수

조선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남권 교수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최효상 교수가 각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29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과학기술자가 국내학술지에 지난 1년 동안 게재한 논문들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각 학회별로 1편씩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과 함께 시상이 진행된다.

최효상 교수는 대한전기학회에서 발표한 ‘DC 그리드 안정성 향상을 위해 변압기형 초전도 한류기가 적용된 직류 차단 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직류차단기술의 한계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공로로 이번 상에 선정됐다.

김남권 교수는 ‘3차원 오일러 방정식의 특별한 해 존재와 폭발 조건에 관한 연구’(global existence for a partially linear 3D Euler flow)로 수상하게 됐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 ▲정상공(전 무등산CC 사장)·최복숙 씨 차남 호남군, 김은근·김영자씨 장녀 정연양=10일(토) 오후 1시 목포 남약신 도시 스카이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

일림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내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 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대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 개발원 드론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론조종 국가 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점위탁지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 =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1급 1차 시험 응시 지원금 지급 =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처: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김장순님 별세, 박경자씨 배우자상, 대웅·남행·남희씨 부친상, 김선자씨 시부상, 차진우·이규생씨 빙부상=발인 31일(수) 오전 8시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